

퀸의 갈라쇼 또 한번의 황홀경

2008-2009시즌은 김연아(19·고려대)의 13년 피겨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시간으로 기억될 만하다. 김연아는 30일(한국시간) 오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갈라쇼를 앞두고 취재진과 만나 “지난 2년 동안 컨디션이 좋지 않아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을 놓쳤다. 누구라도 시상대 정상에 서고 싶어한다”라며 “이번에 우승하지 못했으면 실망이 많이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젠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금”

◇올림픽 금메달은 평생의 꿈=김연아가 시니어 무대에 오르고 나서 머릿속에 그려온 최고 목표는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이었다. 하지만 꿈을 이룬 김연아의 또 다른 목표가 세워졌다. 바로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금메달이다. 김연아는 “올림픽 환희만큼 모든 선수의 꿈”이라며 “아마 금메달을 목에 걸면 더는 바랄 게 없을 것 같다. 이번보다 더 광광 울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김연아는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대해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에 대해 김연아는 “아마 꿈꿔왔던 올림픽 무대 정상에 서고 나면 선수 생활을 더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직 깊게 생각해볼지 않았다”라며 “선수 생활을 끝내면 프로로 전향해 아이스쇼 무대에도 많이 나서야 한다. 선수 생활을 마치더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은 피겨 뿐이다. 지도자로서 어린 선수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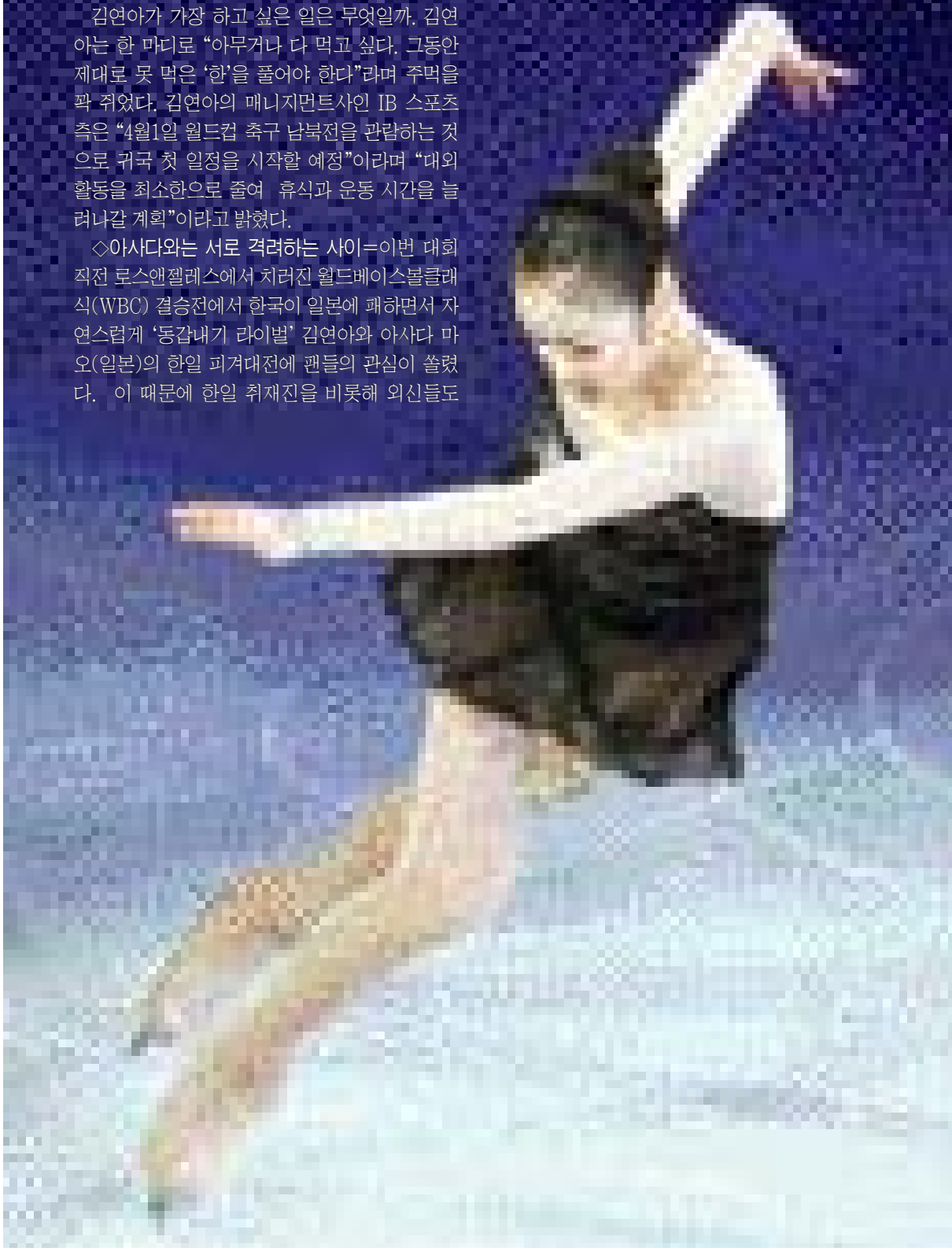
두 선수의 라이벌 관계를 크게 부각했고, 관중석에서도 한국과 일본 교포들의 응원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아사다는 라이벌이자 친구

결국 김연아가 207.71점으로 역대 최고점을 기록, 188.09점에 머문 아사다를 제치고 우승 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연아는 “어느 대회든 선수들은 서로 경계하기 마련”이라며 “아사다와 경기가 끝나고 나서 서로 인사를 했다. 축하한다는 말을 들었고 수고했다고 서로 격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컴비네이션 점프는 러츠로! = “정석 점프”, “교과서 점프”라는 찬사를 받아왔던 김연아는 이번 시즌 플립 점프에서 에지 사용에 주의를 요하는 어떤턴 마크가 계속 따라붙어 자존심이 상했다. 하지만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11개월 앞둔 상황에서 김연아는 점프의 조합을 바꾸겠다는 선택을 내렸다. 김연아는 “이번 시즌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를 연습해 왔는데 오히려 트리플 플립을 사용할 때보다 편하게 느껴졌다”라며 “트리플 플립을 단독 점프로 하고 트리플 러츠를 콤비네이션 점프에 포함하는 방법을 쓰는 게 유리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월드컵 축구 대표팀 응원

◇귀국하면 마음껏 먹고파! = 김연아는 피겨 무대에서 세계 최정상에 오른 ‘여왕’이지만 빈상장을 벗어나면 만 19세의 새내기 대학생이다. 힘든 한 시즌을 끝낸 김연아는 31일 귀국해 40여일 동안 짧은 휴가를 맞보게 된다. 김연아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 김연아는 한 마디로 “아무거나 다 먹고 싶다. 그동안 제대로 못 먹은 ‘함’을 풀어야 한다”라며 주먹을 꽉 쥐었다. 김연아의 매니저먼트사인 IB 스포츠 측은 “4월1일 월드컵 축구 남북전을 관람하는 것으로 귀국 첫 일정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대의 활동을 최소한으로 줄여 휴식과 운동 시간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사다와는 서로 격려하는 사이=이번 대회 직전 로스앤젤레스에서 치러진 월드컵이스톨클래스(WBC) 결승전에서 한국이 일본에 패하면서 자연스럽게 ‘동갑내기 라이벌’ 김연아와 아사다 마오(일본)의 한일 피겨대전에 팬들의 관심이 쏠렸다. 이 때문에 한일 취재진을 비롯해 외신들도



KIA “컨디션 굿... 4강 간다”

프로야구 시범경기 5위... 개막전 맞춰 페이스 조절

KIA 타이거즈가 29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경기를 끝으로 시범경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 지었다. KIA는 이날 시범경기에서 첫 출전한 ‘월드스타’ 이용규의 2타수2안타 맹활약에도 불구하고 2-3으로 패해 5승 8패로 5위에 머물렀다. 지난해 1위를 차지했던 것에 비해 초라한 성적표지만 ‘시범경기는 시범경기’라며 오히려 느긋한 모습이 다. 선수들의 전반적인 컨디션은 좋다. 시범경기때부터 총력을 펼쳤던 지난해와 달리 선수단은 개막일정에 맞춰 페이스를 조절해왔다. 조범현 감독도 급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시범경기에서 11이닝동안 9실점하며 7.36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한 서재응에 대해 조 감독은 “괜찮다”는 평가를 내렸다. 전력부구 대신 컨디션과 구질을 점검해라고 주문을 했던 만큼 만족스럽다는

반응이다. 역시 7.36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한 구본수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윤석민을 필두로 한 선발진에는 구본수, 서재응, 양현종이 낙점됐고, 좌투수진도 선발 진입 가능성이 남겨놓았다. 컨디션이 좋지 못한 로페즈의 위치는 가변적이다. 마무리 한기주가 초반에 합류하지 못할 경우 선발 대신 볼펜진에서 힘을 더할 예정이다. 페이스가 늦어 단 한차례도 마운드에 오르지 못한 한기주는 31일 자체청백전에서 마지막 점검을 받게 된다. 다행히 부상으로 재활에 중점을 뒀던 이범석은 꾸준한 상승세로 합류 시점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후진은 거듭했던 내야진은 ‘원위치’로 돌아왔다. 전지훈턴기간 김선빈, 김민철, 손정훈 등 유격수 자원들이 줄부상으로 낙마하자 조 감독은 3루

수 이현곤을 유격수로 돌리는 실험을 해왔다. 3루에는 ‘루키’ 안치홍을 세웠지만, 타율이 0.073에 그쳤고 수비도 아직 거칠다. 반면 부상에서 벗어난 김선빈이 때서운 타격감과 한층 안정된 수비로 자리 수성에 나서면서 지난해와 같은 내야 라인업이 점쳐진다. 잠재력 높은 안치홍은 1군에서 경험을 쌓도록 할 계획이다. 외야에는 ‘부상’이라는 변수가 작음했다. 30일 무릎수술을 받은 채종범은 10개월가량 재활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3할 고지에 올랐던 김원섭도 만성간염때문에 병원 신세를 졌다. 부적 성장한 나지완과 이용규가 자리를 예약한 가운데 이종범, 최경환, 이호신이 남은 외야 한 자리를 놓고 전력을 다하고 있다. 최희섭, 이재주의 방망이가 동시에 터진다면 시범경기에서 외야수로 나선 장성호의 외야 이동도 가능하다. KIA는 31일과 내달 1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자체 청백전을 갖고 개막 엔트리 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30일 오후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2009 프로야구 미디어데이에서 유영구 KBO 총재와 8개구단 감독 및 선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석민·최희섭 올시즌 기대”

KIA 조범현 감독
키 플레이어 꼽아

프로야구 8개 구단 감독들이 올 시즌 맹활약을 펼칠 선수들을 뽑으면서 시즌 우승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감독들은 3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2009 프로야구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이번 시즌 맹활약할 선수들 꼽아달라”는 질문에 각팀에서 올 시즌 가장 눈여겨 볼 핵심 선수들을 소개했다. 지난해 한국시리즈 챔피언인 SK 와이번스의 김성근 감독은 투수 김광현의 활약 여부를 팀 전력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지난해 SK에 패해 준우승에 머물렀던 두산 베어스의 김경문 감독은 “올해는 지난해 보이지 않았던 선수들이 마운드에 오를 것”이라며 “또 군

대에서 고생한 손시현이 좋은 플레이를 펼치고 성영훈이 잘 던지면 팬들이 올해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IA 타이거즈의 조범현 감독은 제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맹활약을 펼치면서 스타로 떠오른 투수 윤석민에게 가장 큰 기대를 걸었다. 조 감독은 “윤석민의 활약이 올 시즌 성취의 열쇠가 될 것이고 최희섭도 스프링캠프에서 많은 땀을 흘렸기 때문에 중심선수로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감독인 김인식 한화 이글스 감독은 “올해 주장인 신정현 선수를 주목해 달라면서 주장이 됐으니까 솔선수범할 것이고 그가 잘해야 팀도

잘한다”고 밝혔다. 삼성 라이온즈의 선동열 감독은 “작년에 도루에서 꼴찌를 하는 등 기동력이 나빠 올해는 신인 김상수를 개막전 1번 타자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1로이스터 롯데 자이언츠 감독은 “롯데가 재미있는 야구를 하려면 관중이 열정적으로 응원해 야구장이 무너질 수도 있을 것”이라며 또 한번의 돌풍을 예고했다. LG트윈스 김재박 감독은 신인투수 정찬원, 이범준을 팀의 활력소로 뽑았으며 히어로즈 김시진 감독은 3루수 황재균과 유격수 강정호의 활약을 기대했다. /연합뉴스

월드컵 본선길목 양보 못해!

‘코리언 더비’ 남북 축구
내일밤 상암벌서 맞대결

7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안정적인 교두보를 마련하겠다(한국). 44년 만의 월드컵 본선 행운이 이뤄질 일정을 양보할 수 없다(북한) 남북한이 4월1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축구대회 진출에 최대 분수령이 될 최종예선 맞대결을 벌인다. 이번 ‘코리언 더비’는 월드컵 본선행 티켓 주인을 사실상 가름하는 ‘충성 없는 전쟁’이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획으로 남북관계가 냉각된 상황에서 북한 선수들이 서울을 방문하는 데다 야구 대표팀의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준우승 패기와 ‘피겨퀸’ 김연아의 세계선수권대회 패배에 이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사상 처음으로 남북이 나란히 월드컵 본선에 나갈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맞대결에서 진다면 남북 모두 최종예선 조 2위까지 주어지는 본선 직행 티켓을 장담할 수 없기에 총력전을 다짐하고 있다. 북한보다 한 경기를 덜 치른 한국은 승점 8(2승2무)로 북한에 이어 2위로 밀렸다. 지난 28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2-0으로 이긴 북한

은 승점 10(3승1무1패)으로 1위를 달리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2승1무2패·승점 7)와 이란(1승3무1패·승점 6)도 남북한을 바짝 뒤쫓고 있어 북한과 경기는 허정무 감독이 양보할 수 없는 중대한 일전이다. 그러나 한국 축구 대표팀이 승리를 장담할 처지는 아니다. 한국은 북한과 역대 상대전적에서 5승7무1패로 앞서 있지만 지난 1993년 10월28일 미국 월드컵 최종예선에서 3-0으로 이긴 이후 16년간 5차례 A매치에서 모두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지난 2007년 12월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허정무 감독도 북한과 4경기 연속 무승부 행진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2월 동아시아선수권대회 때 1-1 무승부를 시작으로 월드컵 3차 예선 두 경기 모두 득점 없이 비겼고 지난해 9월 중국 상하이에서 치러진 최종예선 1차전 원정에서도 1-1로 장군평군을 불렀다. 한국은 지난 28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된 이라크와 평가전에서 공방 끝에 가까스로 2-1 역전승을 이끌어냈다. 북한 격과 해법을 찾으려고 주전 선수들을 골고루 기용한 허정무 감독은

배후 침투와 2대 1 패스 등 득점 기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만족하면서도 문전 처리 미숙에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새로운 팀을 찾지 못한 대표팀의 간판 공격수 이근호는 실전 감각이 떨어져 여러 차례 득점 기회를 무산시키다 페널티킥 골로 골문을 가른 것에 만족해야 했다. 이근호와 호흡을 맞춘 박주영(AS모나코)도 조커 임무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오랜만에 선발 출장한 때문인지 기대했던 골 결정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경교 누적으로 북한전에 뭉 수 없는 김정우(삼남)를 대신해 대표팀에 차출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조원희(위건 에슬레틱)는 오른쪽 종아리 타박상으로 남북대결 출격이 불투명하다. 부상으로 낙마한 조용형(제주)의 공백을 메우려고 13개월 만에 대표팀에 합류한 중앙수비수 황재원(포항)은 이라크와 평가전에서 자책골을 헌납하며 불안함을 노출했다. 이 때문에 허정무 감독은 ‘캡틴’ 박지성의 중원 조율 속에 전담 키커 기성용(서울)을 중심으로 한 세트피스로 북한의 골문을 열겠다는 전략이다. /연합뉴스